

지역사회에서 일한다 2

광주전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회는 이 지역의 특성과 기대에 걸맞는 가장 '광주다운' 여성단체로 꼽힌다.

"87년 6월항쟁 대열속에서 만난 각계각층의 여성활동가들이 '일하는 여성을 위한 모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무국장 이춘희(32)씨는 이 지역 최초의 민주여성단체가 그 어느 곳보다 자연스럽게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시장 노점상 아주머니부터 여성학 교수까지 광범위한 계층의 여성 30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15명의 지도위원으로는 홍희단(작가), 정향자(가톨릭 노동상담소 간사), 모애급(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지부장)씨 등이 지역 여성지도자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

13평짜리 좁은 공간이나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지역 사회단체와 주민들이 너그러워 주머니를 털어 기금마련을 위한 목도리 판매사업에 가까이 호응해 준 덕분이었다.

여성회는 88년 2월 창립 뒤 첫 사업으로 광주시내 노점상연합회 결성을 지원해 이를 전국노점상연합회로 키워내는 데 큰 몫을 했다.

"6백명 가량의 시내 노점상 가운데 9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층여성들의 생존권이 서울을 뺀 뒤를 앞두고 거리정화라는 미명으로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는 데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었지요."

'끝장사'로 남편(이강씨·민주정취국민운동 광주전남본부장) 옥바라지와 집안 생계를 꾸려야 했던 초대회장 이소라(45)씨와 1백여명의 회원들은 단속현장에서 밤낮으로 좌판을 지키며, 노점상

"광주항쟁 여성활약상 재조명 할터"

88년 결성후 노점상투쟁...전국조직 밑거름 현장활동·일하는 여성위한 사업 함께 다져

들과 함께 싸우고, 다치고, 갇히는 수난 끝에 대부분 장사터를 지켜냈다.

이소라씨는 여성회를 결성하기까지 자신의 삶을 담은 수기 <이 땅의 딸로 태어나>(88년)를 통해 진보를 주장하는 민주운동단체 안에서도 으레 '뒤치다꺼리'만 맡아온 여성들에게 남성과 동지로 서야 한다는 자각을 촉구하기도 했다.

여성회의 가장 대표적인 활동

은 3년째 광주항쟁기념일에 전국의 여성단체 회원들을 초청해 열고 있는 '5월여성결의대회'이다.

90년 행사에서는 특히 광주항쟁에 참여한 여성들의 자주성과 투쟁성을 새롭게 조명하기 위한 '5월여성연구모임'(대표 이경순·전남대교수)을 구성했다.

"흔히 알려진 것처럼 여성들이 음식제공이나 부상자를 치료해주는 보조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홍보, 투쟁일지기록, 민원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사실을 증언을 바탕으로 정리해 올해 안에 자료집을 낼 계획입니다."

연구위원의 한 사람인 안진(전남대 강사)씨는 "80년 5월에 나뿐 아니라 모든 광주여성들이 사회모순과 정치현실에 비로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성운동사에 그때의 여성활동이 반드시 기록돼야 합니다."고 말한다.

여성회의 선도적 활동은 '여성의 전화' '여성노동자회' '여성농민회'(준비위) '순천 우리여성회'(준비위) 등 진보적 여성단체들이 지난해부터 속속 생겨나면서 머지않아 이 지역 민주여성단체 연합체로 결실을 볼 수 있을 것



지난해 8월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범민족대회를 열어 이 지역 민주여성운동의 역할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다.

이미 지난해 별교상고 교사 여학생 성폭행사건, 올바른 타아입법을 위한 여성대회, 이철규 열사 변

사사건 진상규명투쟁, 통일염원여성대회 등에서 이들 단체들과 효과적으로 연대를 다져왔다.

또한 90년 4월에는 24시간동안 운영하는 부설 탁아소 '도담도담아기둥지'를 여성독지자와 각 단체의 지지속에 문열었다.

"지금까지 현장활동에 치우친 나머지 회원의 폭을 넓히는 노력이 미흡했다는 평가에 따라 올해에는 주부·사무직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모든 여성이 함께 깨어나는 운동을 펴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활동을 시작하는 셈이지요."

새 회장 장미화(37)씨의 새해 포부에서 우리 사회가 함께 걸어 가야 할 변혁의 길에 앞장서 뛰어가는 광주여성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다.

<광주=김경애 기자>